

축산물품질평가원 창립 29주년,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

고객홍보처

2018년 4월 17일 화요일,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창립 29주년을 맞았습니다. 나이 서른을 앞둔 스물아홉이 왠지 더 아쉽고도 뜻깊게 느껴지는 것처럼, 평소와 크게 다를 것 없는 4월 17일의 화요일이 축평원 임직원들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창립 29주년 기념식... 축평원은 '사랑'입니다



01



02

축평원은 창립기념일이라고 쉬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축산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는 기관인 만큼 저희 기관의 사정만 두고 업무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대신 본부 직원들과 각 지원장, 평가/이력 부장 등 지원 대표단과 더불어 소소한 창립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오후 2시부터 창립기념식과 부대행사인 소통행사, 화합행사의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창립기념식을 제외하고는 순차를 정해서 행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앞서 행사에 참가한 직원들이 빠지며 뒤에 참여할 직원들에게 터치! 007 작전이 따로 없지요.)

이날 백종호 축평원장은 창립기념식에서 기념사로 “창립 29주년을 맞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긍정적인 사고와 올바른 행동, 실천이 매우 필요한 때”라며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축평원 가족 모두가 축산물의 가치와 신뢰를 높이고, 국민 건강과 행복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가슴에 품고 함께 노력한다면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 지속되는 기관으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직원들을 독려했습니다.

01_ 기념사를 하고 있는 백종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02_ 업무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뿌듯! 뿌듯!!”

03_ 인근 공공 체육시설에서 개최된 소통행사, “여기가 명당이네”

04_ 본부장? 과장?? 공 앞에선 모두 평등하다



03



04



05



06



07



08



09



10

- 05_ “저 친구가 예전엔 훨씬 더 날랐는데...”, “살살 뛰어 머리 빠진다!!”
남다른 걱정 속에 몰입 중인 선수들
- 06_ 내가 바로 축평원 최고의 수문장!
- 07_ 소통행사 우승한 이력사업본부
- 08_ 기념케이크를 절단하며 화합행사를 연 백중호 원장과 지성환
노조위원장
- 09_ 협력업체 직원까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화합’의 장
- 10_ 먹는 게 남는 것! 최고의 화합은 식사와 함께!

지성환 축평원 노조위원장은 “30주년 맞이하여 할 일이 많다.”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수평적, 능동적인 문화로 바뀔 수 있도록 30주년을 맞이하기 전에 올해 그것 하나는 하고 30주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로는 창립 29주년의 오후를 기록한 사진들과 함께 생생한 소식으로 나눠봅니다. 마음으로 함께 축평원의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